

숫자 상징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김 남 예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한국 문화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은 문화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상징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상징체계 중에서 숫자 상징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상징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에 숫자 상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 문화 이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숫자 상징 교육 내용을 신화, 민속, 급기, 한국어 표현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상징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숫자 상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 사이의 문화 간 의사소통 및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 사이의 문화 간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숫자 상징, 한국 문화, 문화 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

1. 서론

상징에는 문화가 담겨 있다. 한국 문화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은 문화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징에는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가 함축

되어 있으며, 상징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문화 상징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항목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다.¹⁾ 그러나 한국의 상징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이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 추상적 대상이어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별도의 문화 수업을 계획하지 않는 한 한국 문화 상징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문화 상징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상징 교육 항목과 그에 대한 설명이 사전식으로는 제시되어 있으나²⁾ 그 내용을 한국어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많은 정보들 가운데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배울 때 ‘중국의 상징은 만리장성, 일본의 상징은 스모, 프랑스의 상징은 에펠탑, 이집트의 상징은 피라미드’ 등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 요소를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의 문화 간 의사소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상징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실제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징 요소 즉, 동물, 식물, 천체, 색채, 수의 상징³⁾이 한국인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의 어떠한 부분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여우

-
- 1)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3,000여 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국가적인 조사 결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2) 박영순(2008)에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사상과 종교적 정체성, 상징적 정체성, 정치 사회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 의식구조적 정체성, 법과 제도적 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상징적 정체성으로 ‘한글, 태극기, 무궁화, 한복, 김치, 씨름, 100대 상징(문화관광부 선정)’을 제시하고 있다. 박한나(2009)에서는 한국의 상징으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경일과 공휴일, 한국의 지표(면적, 인구, 언어, 수도, 한국의 이미지 등)’를 제시하였다. 배현숙(2002)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 문화로 ‘태극기, 무궁화, 김치, 불고기’와 함께 역사상의 인물과 한국 고유의 문학 양식을 비롯한 무형 문화재들을 제시하였다.
 - 3) 상징체계의 분류는 김낭예(201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징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징체계를 ‘동물, 식물, 천체, 색채, 수’로 정리하였다.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여우'와 '토끼'라는 동물이 가지는 상징 의미가 무엇이기에 비유로 사용되는 것인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금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빨강이라는 색채의 상징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징 교육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상징의 여러 체계 중 숫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숫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집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엘리베이터의 층수 등 우리는 숫자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숫자는 시간 표현과도 연관되고, 촌수(寸數) 즉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숫자를 통해 하루의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에는 사전적인 의미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용은 '계산에 쓰이는 숫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숫자는 숫자인 동시에 신화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카를 G. 용 외 2012:56). 우리는 이 점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문화에서 수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치들이 수에 부여되어 있다. 어느 문화에나 행운의 수가 있고 불행의 수가 있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수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수에 부여된 상징 의미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숫자의 상징 의미를 '숫자 상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숫자 상징이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⁴⁾

수에 부여된 많은 상징 의미들은 종교와 신화, 민속, 금기, 언어적 표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숫자 상징을 이해할 때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이때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4) 익명의 심사자께서 '숫자 상징'과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는 숫자'는 서로 다르다는 지적을 해 주셨으나, 본 연구에서는 숫자 상징 자체보다는 그것이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고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는 숫자' 역시 숫자 상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둘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숫자 상징'에는 선행 연구들에서 '숫자개념'(최은경, 1985), '숫자관념'(장범성, 2000), '숫자의 (문화적) 함의'(이계승, 2002; 조승아, 2005; 강민진, 2006), '숫자의 상징성'(장장식, 2011)' 등으로 논의되었던 정의들도 포함된다.

수는 그 의미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같은 상징 의미를 갖는 숫자는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로 학습자들이 목표어 문화에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 학습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숫자가 가지는 상징 의미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숫자 자체의 문화적 상징 의미를 살펴본 연구와 언어 대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숫자와 한국 숫자의 의미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숫자 자체의 상징적 의미를 살핀 연구로는 최은경(1985), 손노선(2011), 채보라(2012)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은 각각 단군신화, 민담, 성어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 의미를 파악하였다. 언어 대조를 통한 숫자 상징 연구로는 임광욱(2014)을 들 수 있으며, 한국어와의 대조는 아니나 중국과 외국의 숫자 상징을 비교한 이재승(2003)의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 이 외에 해음(諧音)⁵⁾을 통해 다양한 숫자 상징을 사용하는 중국의 숫자 상징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장범성, 1998; 이재승, 2002; 박종한, 2003; 조승아, 2005; 강민진, 2006; 한용수·강영규, 2012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숫자 상징이 신화나 민담, 성어 등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상징이라는 큰 틀에서 숫자 상징을 한국 문화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숫자 상징을 통해 살핀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나타난 숫자 자체의 상징 의미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리된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을 한국 문화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범주별로 묶어 숫자 상징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내

5) 해음이란 A와 B 두 글자가 서로 다르지만 같거나 유사한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B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한 단어를 말하면, 이 단어가 자국어의 역할을 하면서 곧바로 연상 작용에 의해서 발음이 같은 다른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사(死, si)가 여기에 속한다(박완호, 2009:100).

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숫자 상징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교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분석 대상 교재는 한국어 통합 교재⁶⁾ 4종⁷⁾으로 상징 교육이 가능한 중급 이후의 단계 총 22권이다. 교재에 제시된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교재⁸⁾

가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수 관련 어휘 및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다.

권	과	숫자 상징 관련 내용
중급 I	8과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중급 II	1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
	2과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6과	일석이조,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급 I	2과	일석이조
	5과	-기 십상이다.
고급 II	5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8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6) 별도의 문화 수업이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숫자 상징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화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문화 분리 교재가 아닌 통합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7) 경희대 『한국어』, 연세대 『연세 한국어』, 서강대 『서강 한국어』,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로 이하 가, 나, 다, 라 교재로 표기하였다.

8) 최근(2015년 완간)에 출판된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이 분리된 교재이므로 본고에서는 통합교재인 구 교재를 분석하였다.

가 교재에서는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이 주로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으로 제시되거나 ‘-기 십상이다’라는 문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화 교육보다는 언어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상징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한국어 교실에서 이러한 표현에 사용된 숫자 상징의 의미를 다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한, 하나’, ‘삼’, ‘사’, ‘십’, ‘천’이라는 숫자가 우리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가 함께 제공된다면 왜 ‘콩 두 쪽’이 아니라 ‘한 쪽’인지, ‘만 냥’이 아니라 ‘천 냥’인지 학습자들에게 속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하나의 굳어진 관용표현이 아닌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표현으로 가르칠 수 있다.

2. 나 교재

나 교재에는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권	과	숫자 상징 관련 내용
3-2	9과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4-1	3과	이웃사촌
4-2	6과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7과	중국 사람들은 4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더라. 왜냐하면 숫자 4(四, 중국어로 Si)와 죽는다는 뜻의 사(死, 중국어로 Si)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혼식도 4월에는 하지 않고 축의금도 4만원, 14만원 등으로는 하지 않는다.
		02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라의 금기인지 맞는 번호를 쓰시오. <듣기 지문> (...) 일본에서는 짝수로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도 여섯 송이 여덟 송이 등 짝수로는 선물하지 않아요. (...) 독일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짝수가 아닌 홀수로 선물하는데 열 세 송이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8과	아이를 낳은 집에는 3·7일 전에는 방문하지 않는다.
	9과	열 번 재고 가위질은 한 번 하라 (...) 특히 성(性)이 다른 세 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여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데 이 날만큼은 틈틈이 먹어서 아홉 번을 먹습니다.

5-2	7과	2. 한국의 관혼상제에 대해 위 표현들을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장례식은 돌아가신 지 3일, 5일, 9일 이렇게 홀수 날 동안 치르는데 이 날짜가 길수록 더 정중한 장례로 생각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문화> (….) 오늘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개 49일 만에 탈상을 하는데 이는 불교에서 나온 풍속이다. 죽은 사람이 다음번에 좋은 생을 받기 바라는 뜻에서 죽은 날로부터 7일째마다 7회에 걸쳐서 천도재를 지내준다. 이를 사십구재라고 한다. (이하 생략)
6-1	1과	칠전팔기

나 교재에는 가 교재와 마찬가지로 속담에서 숫자 상징 관련 표현이 제시되고 있다. 나 교재에는 가 교재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열 번 재고 가위질은 한 번 하라’는 속담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는 물건을 고를 때 여러 조건을 잘 살피고 고려한 후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절제, 신중, 합리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숫자 상징을 활용한다면 이때의 ‘열 번’은 단순히 10회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번’을 의미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도 함께 제시하여 숫자 표현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교재에서는 속담에 더하여 본문 및 <문화> 항목에서도 숫자 상징과 관련된 내용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4-2권의 7과는 과의 제목이 ‘미신’으로 ‘복, 운, 불행, 운수’ 등의 운명 관련 어휘와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⁹⁾는 금기, 사주와 꿈(해몽, 태몽)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예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문화를 비교해 보는 활동도 제시되어 있어 문화 간 의사소통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숫자 상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4’를 기피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9) 7과 2항 대화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마리아: 아니, 왜요? 이름을 빨간 색으로 쓰면 안 돼요?
 선배: 어른들이 빨간 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대더라. 그걸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건 안 하고 싶어서 그래.(나 교재, 4-2권 262쪽)
 이러한 금기는 색채상징과 관련된 내용으로 역시 상징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엘리베이터에는 왜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은지 학습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5-2권에서는 장례 의식과 관련된 숫자와 사십구재가 불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왜 3, 5, 9와 같은 홀수 날 동안 장례를 치르는지, 왜 7일째마다 재를 지내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어 교재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교안이나 교사용 지도서에 이와 관련된 교사용 도움말이 제공된다면 수업 준비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숫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의 본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다 교재

다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과	숫자 상징 관련 내용
3B	8과	작심삼일
4A	4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요.
4B	5과	<단군신화> (...) 사람이 되려면 백 일 동안 마늘과 쭈담 먹으면서(...) (...) 아기 낳은 집은 삼칠일이 지난 후에 방문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왔어요.
	6과	열 번 짝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
5A	3과	사람이 죽은 후 3~5일 동안 장례식을 한다.
	4과	일석이조, 칠전팔기
5B	4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 한국인은 행운의 숫자로 알려진 '7'(35.1%)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인은 '만세 삼창, 삼세판'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3은 행운의 숫자 7 다음인 2위(20%)로 나타났습니다. (...)

이 교재에는 속담에 제시된 숫자 상징 관련 표현과 '작심삼일, 일석이조, 칠전팔기'와 같은 사자성어에 제시된 숫자 상징 관련 표현이 거의 같은 비중

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4B권에 제시된 속담의 경우 ‘열 번 짚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 번 노력하면 된다’는 의미가 제시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부분을 보면 전체를 추측할 수 있다’, ‘밭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는 ‘말이나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진다’는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는 학습자들이 사전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보다 심화된 문화 교육을 위해 사용된 숫자의 상징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5A권에 제시된 ‘일석이조’는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이 말을 쓴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고, ‘칠전팔기’는 ‘아무리 실패를 계속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경우에 이 말을 쓴다’라는 설명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칠전팔기로, 칠전팔기 끝에’라는 표현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시는 학습자들이 해당 표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의 측면에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의 측면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국 문화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단군신화에 나타난 수 100과 출산과 관련된 3·7일도 단순한 정보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숫자가 사용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5B 4과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재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TOP 10’이라는 설문 결과만 제시되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학습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교사의 부연 설명이 요구된다.¹⁰⁾

10) 이와 관련하여 정환석(2015)에서는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하여 시기별로 숫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핀 결과,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숫자 ‘3’보다 ‘7’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1940~1950년대에는 ‘7’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음력 칠월은 가장 궁색하게 지내는 칠궁(七窮), 사물이 고르지 않은 것은 칠령팔락(七零八落) 등)이 있어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대치되었으나 이후 1960~1970년대에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 문화에서도 긍정적인 ‘7’의 의미(무속에서의 칠성(七星), 칠천(七天))가 나타나 ‘럭키세븐’과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4. 라 교재

라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수 관련 어휘 및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다.

권	과	숫자 상징 관련 내용
5	문화5	(...) 한국에서는 양력 12월 31일 밤을 제야(除夜)라고 하여 새해 0시가 되면 서울 종로2가 보신각에서 33번 '제야의 종'을 친다.
6	3과	나라에 따라 다른 문화: (...) ⑧ 13명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다.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꽃을 짝수로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해요. ¹¹⁾
		숫자 '4'는 '죽다'와 발음이 비슷해 죽음을 부를 수 있다.
	숫자 '4'의 발음이 죽음을 뜻해서 그런지 병원 엘리베이터에는 '4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11과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
	13과	단군신화에서 곰은 인간이 되기 위해 썩과 마늘을 먹으며 21일을 견디어 낸 인내심이 강한 동물로 인식된다.
문화5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7	문화2	(...) 그래서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를 이웃에 사는 사촌이라 하여 '이웃사촌'이라 부른다.
	8과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8	6과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

이 교재는 권 당 14개 단원에 5개의 문화 단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 상징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문화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된 6권 3과는 과의 주제 자체가 '나라에 따라 다른 문화'로 문화 간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숫자 '4'에 대한 기피는 앞서 살펴본 나 교재와 공통적이고, 여기에 서양에서 기피하는 숫자인 '13'도 제시되어 문화에 따라 기피하는 숫자도 다르다는 것을 상징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는 속담은 6권과 7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6권에서는 사용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¹²⁾ 문맥을 통해 속담의 의미

11) 이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재승(2003:197)에서는 러시아에서 ' 짝수'라는 단어의 발음이 ' 초트느이'로 '마귀(초르트)'나 ' 검은색(초르느이)'과 같이 불길한 의미를 가진 단어와 음이 유사하여 러시아인들이 짝수를 불길한 수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12) (...) 요즘은 이 업체의 물건을 주문하려는 문의 전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속담 자체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속담에 사용된 ‘천 리’의 구체적인 의미는 학습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7권에서는 이 속담이 8과의 주제인 ‘소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 거짓, 헛소문, 뜬소문, 유언비어’라는 어휘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제시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¹³⁾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¹⁴⁾

6권 문화 5에 제시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¹⁵⁾라는 속담과 8권 6과에 제시된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표현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10’은 ‘많다’,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¹⁶⁾

한다. 인터넷을 통해 입소문이 해외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만큼이나 효과가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13) 2.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위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반응해 보세요.
- 1) 친구가 그러는데 10년 후에 지구가 없어진대요.
 - 2)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요즘 연애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 3)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 4) 여배우 A하고 가수 B가 사귀었다고 하던데요.
- 14) 교재 외에 교원용 지침서에도 다음과 같이 수업 진행과 관련된 절차는 제시되어 있으나, 제시된 표현의 의미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 소문과 관련된 어휘를 학습한다.

- ① 어휘 늘리기 1의 어휘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여 어휘를 도입한다.
예) 소문 중에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진짜가 아닌 소문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 ② 책에 있는 어휘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추측해 보게 한다.
(...) 소문과 관련된 속담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교재에 제시된 속담의 의미를 순서대로 추측해 보게 한다.
- ③ 각 어휘의 의미를 다 같이 확인해 본다.

- 15) 사람의 손가락이 열 개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수 자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속담은 열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다는 의미이다’라는 교재의 설명을 참고하면 ‘10’이라는 수가 단순히 수량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 숫자 상징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이나 문화 단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보다 숫자가 포함된 속담이나 관용 표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 자체의 기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숫자의 상징 의미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언어적 숙달도라는 제약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숫자 상징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도 숫자 상징을 활용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숫자 상징과 한국 문화 교육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숫자 상징 관련 내용들을 상징이 쓰이는 주요 영역인 신화, 민속, 금기의 범주로 묶어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교재 분석에 나타난 숫자 상징 관련 내용이 대부분 속담 및 관용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표현을 하나의 범주로 추가하였다.¹⁷⁾

1. 숫자 상징과 신화

숫자는 신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 신화에 나타난

-
- 16)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숫자 상징 10을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는 관용표현 및 속담으로 는 ‘열 번 죽었다 깨어도, 열 일 체치다,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 십 년 목은 체중이 내리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열 번 갈아서 안 드는 도끼가 없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을 못 막는다, 열을 듣고 하나도 모른다’ 등이 있다.
- 17)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 상징사전』과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영역을 참고하고, 한국어 교육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숫자 상징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네 개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한국문화 상징사전』은 한국의 신화, 어문학, 역사학, 민속, 종교, 인류학, 철학, 도상 부문의 관련 전문 학자로 구성된 편찬 위원을 포함, 총 78명이 집필진이 전공별로 분담하여 집필한 사전으로, 각각의 상징 항목을 ‘어원, 신화, 무속민속, 풍습, 종교, 동양문화, 역사문학, 현대 서양, 도상(icon)’이라는 9개의 층위로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수의 의미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종교관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로 여러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단군신화에서는 숫자 3이 중요하다.¹⁸⁾ ‘삼위태백(三位太白)’, 환웅이 인간 세상에 가지고 온 천부인(天符印)¹⁹⁾ 세 개, 환웅과 함께 내려온 3천 명의 무리, 인간의 360여 가지 일, 꿈이 삼칠일 만에 웅녀가 되는 것 등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설(2009)에서는 사물의 세 국면, 세 국면의 대단원을 의미하는 3을 ‘조화와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 신화에서도 3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고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여 고구려로 데리고 온 사람도 ‘오이, 마리, 협보’라는 세 사람이다. 그 후 모둔곡에서 만난 현자도 ‘재사, 무골, 목거’라는 세 사람이었다. 이 외에도 신화는 아니지만 신라의 김유신에게 고구려 첩자의 정체를 일러준 산신도 ‘나림, 혈레, 골화’라는 세 신이었고,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 졸본부여로 갈 때 함께 했던 사람도 ‘옥지, 구추, 도조’라는 세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신화 ‘천지왕본풀이’에 나오는 창조신도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 3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하늘, 저승, 이승’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조현설, 2009:271~272). 한국의 신화에서 3은 신성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존재하고, 힌두교의

18) 단군신화에서는 이 외에도 쑥 한 줌과 마늘 20개, 100일 등의 숫자 상징이 나타나고 있다. 3×7일과 100일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손노선(2011)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3×7일을 태움을 기준으로 한 여성의 월경주기로 파악하였다. 즉 3×7일을 임신이 가능한 1×7일을 준비하기 위해 마늘과 쑥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정화한 기간으로 본 것이다. 또한 100일은 남성의 생리주기와 여성의 생리주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인간의 탄생을 위한 완벽한 시간이라고 하였다. 결국 단군신화에 나오는 3×7일과 100일은 조선을 건국하는 신성한 존재인 단군이 탄생하기 위하여 제시된 금기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19) 천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한데, 바람(風伯), 비(雨師), 구름(雲師)의 신을 거느릴 수 있는 징표로 보는 견해도 있고, 무당의 기물 즉, 무구(巫具)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 교재 4B권에서는 ‘거울, 칼, 방울’로 제시되어 있고, 이충수(2008:193)에서는 ‘천부인이 바람, 비, 구름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삼치창도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무기이다’라고 그리스 신화와 숫자 3의 사용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브라흐마(창조신), 비슈누(보호신), 시바(파괴신)’도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종교가 다르고 동서가 달라도 세 신의 조화와 일체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완성과 조화를 향한 인간의 무의식적 추구가 만들어낸 다양한 변주의 결과(조현설, 2009:274)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 교육에서는 한국인의 숫자 3에 대한 선호가 신화에서부터 우리 민족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상이며, 이것이 ‘삼 세 번, 삼 세 판’을 선호하는 풍속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문화만의 특수한 것은 아니며 인류 보편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 문화와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숫자 상징과 민속

한국에서는 ‘삼 세 번, 삼 세 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삼 세 번을 해야 하고, 내기도 세 판을 해야 한다. 행사에서 만세를 부를 때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을 해서 ‘만세 삼창’을 한다.²¹⁾ 또한 민속에서 서낭당을 지날 때에는 돌 세 개를 엮고, 침을 세 번 뱉고 지나 가야 무사하다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심마니들은 요즘에도 산삼을 발견했을 때 “심봤다!”를 세 번 외친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는 술을 3잔 올린다. 또 잔을 올릴 때는 술잔을 향 위쪽으로 세 번 돌린 후에 올린다. 차례가 끝난 후에는 밥을 세 번 떠서 냉수에 넣는 것으로 조상에게 숭늉을 올리는 것을 대신한다.²²⁾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 가운데는 3을 가장 좋은

20) 이 외에도 여러 문화권에 걸쳐 사람들은 신을 삼위일체의 존재로 파악하였다. 고대 이집트에도 오랜 세월이 걸쳐 숭배 되어 온 여러 삼위일체 신들이 있었는데, 고대 이집트의 도시 테베에서는 주신인 아문(Amun)과 그의 부인인 무트(Mut)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달의 신 콘수(Chons)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 밖의 삼위일체 신으로는 오시리스·이시스·호루스 및 아문레·프타 등이 있다(오토 베츠 지음, 배진아 옮김, 2004:43).

21) 만세 삼창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민 외(2004)에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음양 사상으로 설명하였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1은 최초의 양수(陽數)이고, 2는 최초의 음수(陰數)이다. 3은 양수 1과 음수 2를 합한 완전한 숫자이다. 따라서 만세를 외칠 때 한 번은 부족하고, 두 번은 어중간하니, 꼭 세 번을 채워야 가득찬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양의 공통적인 문화로 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어떠한 민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학습자 문화에서는 어떠한 민속을 찾아볼 수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양에서는 3보다는 숫자 7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3에 대한 선호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도 고대 이래로 신탁과 주문에서 3은 마법의 힘을 다지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중요한 소망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특정 단어나 몸짓을 세 번 반복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토이(toi), 토이, 토이”라고 말하는 독일 풍습도 있고, 성호를 세 번 긋는 풍습도 있다. 둘 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행동이다(하랄트 하트만 지음, 전대호 옮김(2013:28~29).²³⁾

민속에서의 숫자 상징은 특별한 날에 대한 선호로도 나타난다. 음력 3월 3일, 삼진날²⁴⁾은 머리카락을 땅에 묻으면 쑥쑥 자랄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믿었다(이충수, 2008:196)고 한다. 요즘에는 삼진날에 옛날처럼 각시놀음이나 활쏘기 대회 등의 특별한 놀이나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화전(花煎)을 부쳐 먹는 풍속은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숫자 5는 동양에서 천지의 조화를 상징하여 전통적인 생활에서 그

-
- 22) 이 외에도 3을 선호하는 예로 술자리에 늦게 오면 후래자(後來者) 삼배(三盞)라 하여 술을 세 잔 연속으로 마시게 하는 이유를 그래야 정이 가득찬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자료(정민 외, 2004; 조현설 2009 등)도 볼 수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예시에서 제외하였다.
- 23) 이 책에서는 이 외에도 3의 삼원성의 원리, 삼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수계끼를 맞혀야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세 번 주어지고, 산신령은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며, 주인공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세 번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것은 수많은 동화와 전설의 구조를 결정짓는 모티브로, 이 모티브의 바탕에는 시도를 반복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충수(2008)에서는 동화에서 그 예를 찾았는데, ‘장화 신은 고양이’의 세 아들, 곰 세 마리, 아기돼지 삼형제, 신데렐라(세 명의 딸, 3일 동안의 연회) 등을 들 수 있다.
- 24) 이상언(1995)에서는 한국에서의 숫자 3에 대하여 ‘시원적인 것, 필수불가결의 중요한 것, 좋은 것’이라는 핵심성의 의미와 함께 ‘전체의 모든 것,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함, 통칭함’의 전체성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숫자 3이 지닌 상징적 원의(原意)가 흥부전에서는 3월 3일에 제비가 돌아오는 날로 나타나는 데, 3월 3일에 날아온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에서 박이 열리고, 그 박에서 나온 온갖 재물로 흥부는 부자가 된다.

사용이 다양하다. 동양에서 우주의 이치는 음양과 오행, 즉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로 설명한다. 동양의 전통 색채는 청적황백흑(靑赤黃白黑)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서양에서 빨주노초파남보의 7색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서양의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7음계를 기본으로 하나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우’ 5음계를 사용한다.²⁵⁾ 양(陽)에 해당하는 홀수인 길수(吉數) 중에서 5는 완전을 의미하는 길한 수이다. 그래서 5가 겹치는 단옷날은 태양이 가장 순수하고 그 빛이 왕성한 날로,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성한 때이다. 그래서 천중가절(天中佳節) 또는 천중절이라 부르며 숭상해 왔다(한국문화 상징사전 2, 128쪽). 또한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술을 3잔 올리는 것이 기본이나 더 올리게 되면 4잔이 아닌 5잔, 즉 홀수로 잔을 올린다. 이것 역시 한국 문화에서 양수(陽數)를 선호하는 예로 볼 수 있다.²⁶⁾

한편 중국에서는 숫자 8²⁷⁾에 대한 선호가 현대의 민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들 수 있다. 중국 문명에서 8은 질서의 원리를 나타낸다. 불교에는 8보가 있고, 전통 중국 악기는 8개이며, 중국 신화에는 8신선이 있다. 이러한 숫자 8에 대한 선호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시작하였다.²⁸⁾

25) 물론 서양에서도 5의 쓰임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 특별히 강조되며,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본 신앙생활(五柱)을 의무로 삼고 있다.

26) 이 외에 음력 9월 9일은 중구(中九) 또는 중양(重陽)이라 하여 명절의 하나이다. 이 날의 행사는 수확의 풍성함과 잔치의 의미를 지닌다. 중구는 9가 겹쳤다는 뜻으로, 양(陽)이 넘치는 날이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국화꽃 일을 따서 찹쌀가루로 반죽해 단자를 먹기도 하고, 단풍놀이를 하기도 한다(한국문화 상징사전 2, 478쪽). 현대에는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교육의 필요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7) 숫자 8은 불교와도 연관된다. 팔정도 즉,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 위한 길이 8개이고, 부처의 가르침에 나오는 해탈의 수레바퀴도 바퀴살이 8개이다.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의 팔이 8개인 것으로 묘사된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이 타는 말 ‘슬라이프니르’의 다리가 8개이다. 또한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는 바퀴살이 여덟 개 있는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28) 숫자 8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은 나라 전체에 일종의 강박현상처럼 나타날 정도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에 8이 포함되어 있으면 때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여긴다. 8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역시나 동음현상 때문이다. 중국어로 8은 ‘부’나

100도 한국 민속에서 중시되는 숫자이다.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나면 아침에 미역국과 흰밥으로 삼신상(三神床)을 차린다. 산모(產母)나 아기의 할머니는 삼신상을 앞에 놓고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이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이 시기에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그 기간이 특별히 100인 것은 한국인에게 100일이 ‘치성’을 드리는 중요한 기간으로 여겨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0일은 단군신화에서도 나타나는데,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백(百)의 옛날말이 ‘온’이고 ‘온’은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련, 근신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임동권, 1971)도 있다. 이러한 민속에서의 100의 숫자 상징은 아이를 갖기 위한 백일기도, 수능 시험을 보기 전 부모가 자식의 합격을 기원하는 백일기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현대에는 연인들 사이에 사귀는 지 백일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새로운 민속이 되었다.

민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추어 각각의 것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나 숫자 상징을 통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의식을 가려쳐 준다면, 숫자 상징이 민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숫자 상징과 금기

숫자 상징은 금기와도 연결된다. 사람들은 불행의 수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며, 그 숫자를 발음하는 것도 피하려고 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4’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²⁹⁾ 사실 많은 문화에서 4는 세계의 질서, 전체성을 상징한다.³⁰⁾ 기본 방향은 ‘동서남북(東西南

‘번영’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발음된다(제이미 버컨 지음, 제효영 옮김, 2010:124).
29) 이는 중국과 한국에서만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전체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제이미 버컨 지음, 제효영 옮김(2010:122)에서는 4가 불행의 수로 여겨지는 것을 서구 사회에서 13을 불운과 연관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대부분 지역의 방언에서 4는 ‘죽음’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발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는 물론이고 4가 포함된 모든 숫자들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노키아 사의 전화기나 캐논 카메라 등 중국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은 모델 번호가 부여될 때 3 다음에 바로 5로 넘어간다. 하지만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숫자 4가 ‘과제, 일’과 비슷하게 발음되며 이 때문에 행운의 수로 여기기도 한다.

北)’의 ‘사방(四方)’이다. 또한 ‘춘하추동(春夏秋冬)’, 계절도 사계(四季)이고, 동양에서 ‘사군자(四君子)’로 사랑받는 ‘매란국죽(梅蘭菊竹)’도 넷이다. 절에 가면 입구에서 우리를 맞는 ‘사천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4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4에 대한 기피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일본인이 드나드는 일본 호텔에는 번호에 4가 들어가는 객실이 없다(하랄트 하르만 지음, 전대호 옮김, 2013:30)고 한다.³¹⁾

반면 서양에서는 13이 불운의 수이다. 서양의 여러 호텔에는 13이 들어가는 방이나 13층이 없으며, 몇몇 항공사(예컨대 루프트한자, KLM, 아에로플로트)는 좌석 번호에서 13을 배제한다(앞의 책, 44~45쪽)고 한다.³²⁾ 또한 서양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는 13명은 안 되며, 이미 초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한 식탁에 앉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명은 1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다. 어떤 모임에서 인원이 한 사람 초과될 경우, 다른 사람들은 초과되는 그 한 사람을 가리켜 “12명이 모이는 모임에 나타난 13번째 사

30) 세계문화상징사전에 따르면 숫자 4는 완전성, 전체성, 완성, 연대, 대지, 질서, 합리성, 측정, 상대성, 정의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 사계, 정사각형의 4변, 십자가의 4개의 팔, 낙원에 있는 4개의 강, 지옥에 있는 4개의 강, 4해, 4개의 성산 등을 들고 있다(진 쿠퍼 지음, 이윤기 옮김 1994: 237~238 쪽). 오토 베츠(2004)에서도 ‘4도 3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것이다. 4각형은 이미 정리가 끝났거나 형태가 확정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에서는 어떤 특별한 역동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믿음직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는 대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의 손으로 건설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 역시 4각형을 기초로 했다’는 4의 상징성을 설명하며 4를 ‘균형과 안정의 수’로 정의했다(오토 베츠 지음, 배진아 옮김, 2004:57).

31) 일본에서도 4를 기피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여 아파트나 병원, 침대에도 4를 기피한다. 따라서 일본 사람을 초대할 때는 요리의 개수가 4개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서간려 외, 2011:212).

32) 이러한 13에 대한 기피 원인은 성경과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와 12명의 제자, 즉 13명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가 ‘이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후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처형된다. 또 이 날이 바로 13일이었다고 한다. 북유럽 신화에서도 잔칫날 열 두 신이 모여 있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열세 번째 악신이 찾아와 주신인 오딘의 아들 빛의 신 발드르를 죽인다.

랍'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모임에서 빠져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가신 사람이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취급을 받게 된다(오 토 베츠 지음, 배진아 옮김, 2004:150~151).

또한 7은 한국의 풍습에서 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첫 七日, 두 七日,三七日을 기해서 행사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금줄은 삼칠일 동안 매어 둔다거나 삼칠일에 수수경단을 먹으면 아이 병이 예방된다는 풍속이 있다. 이같이 7은 3과 함께 쓰여 금기의 기한으로 주로 쓰인다(최은경, 1985:84~85).

한국 문화에서는 9, '아홉수'에 대한 기피도 있다. 9를 짝 찬 숫자라 하여 아홉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금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홉수가 든 해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피한다. 물론 9에 대한 이러한 금기는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상징성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교육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문화 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9가 '苦'와 발음이 비슷하여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9가 '久(오래되다)'와 발음이 같아 '영원, 장수'의 의미를 부여하여 선호하는 수이다.³³⁾

결혼과 관련된 금기로 일부 한족들은 결혼식을 4월, 5월, 9월에 올리는 것을 기피한다고 한다. '4, 5, 9'의 발음이 유사한 다른 의미를 전하기 때문이다. '四'는 '死'와 동음으로 불길한 의미이다. '五'는 '誤'와 동음으로 '五月'를 '惡月' '誤差月'로 생각하여, 결혼식을 '착오'의 뜻으로 오인한다. '九[jiu]'는 '狗[gǒu]'와 해음으로 '狗'는 욕을 뜻하는 나쁜 의미가 있고, 9월에는 서리[霜]가 내리는데 '霜'과 '喪'이 해음으로 9월에 결혼하면 '喪夫' '喪妻'를 할 수 있다고 여겨 기피하기도 한다(한용수, 2014:326)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숫자의 상징 의미와 관련된 금기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33) 9는 중국어의 '안정성', '지속적인 행복'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발음되며 이 때문에 결혼식 등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면 징표로 많이 사용된다. 광둥어에서도 숫자 9가 '충분한'이란 뜻의 단어와 거의 동일하게 발음되어 역시 길한 숫자로 여긴다. 또 한자리 수 가운데 가장 큰 수이므로 거대함, 광대함과 관련지어 생각하기도 하는데, 특히 중국 황제들이 그러한 의미로 9를 많이 사용했다(제이미 버킨 지음, 제효영 옮김, 2010:125).

고 있다.³⁴⁾ 그 이유와 원인을 숫자 상징의 측면에서 가르치면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학습자 간의 상호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숫자 상징과 한국어 표현

II 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숫자가 포함된 속담 및 표현을 빈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6회)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3회)
일석이조(3회)	콩 한 쪽이라도 나뉘 먹는다.(2회)
이웃사촌(2회)	칠전팔기(2회)

다음의 예는 모두 1회만 나타난 예들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열 번 재고 가위질은 한 번 하라.
열 번 짚어서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기 십상이다.

이러한 한국어 표현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표현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 제시된 표현에서의 ‘일’, ‘하나’는 ‘가장 작은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숫자 1의 상징 의미를 별도로 가르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한’의 상징 의미는 ‘크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예로 최은경(1985)에서는 한강의 ‘한’, 한밭(대전외의 옛이름)의 ‘한’,

34) Hyun-tahk Chay(2005)에서는 이러한 대조적인 숫자관이 각 문화권에서 영향력이 큰 학문과 종교가 서로 다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숫자학, 사전, 기사 분석을 통해 밝혔다. 즉 실질적인 면이 중시되어 온 유럽 문화권에서는 숫자학과 성경이 숫자에 관한 관념을 주도해 온 반면, 표면적인 것이 중시되어 온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발음, 글자 모양 등의 언어학적인 요소와 자연에 밀착된 전통 신앙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한+아버지)의 ‘한’을 제시하고 있다.³⁵⁾ 이 외에도 ‘하나’는 ‘한 술 밥에 배 부르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매도 처음 맞는 것이 낫다’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번으로서의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 ‘한 손뼉이 울지 못한다’는 말에서는 ‘고립’ 상태를,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 ‘한술밥 먹고도 송사 간다’ 등의 말에서는 ‘동일함’을 나타낸다(한국문화 상징사전 2, 719쪽). 이와 같이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상징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맥락에 따라 적절한 상징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따라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에서의 3년은 무엇을 이루는 데 ‘충분한’ 또는 ‘오랫동안’의 의미로 쓰였다.³⁶⁾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에서 ‘서 말’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3에는 ‘많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표준국어대사전)는 뜻으로, ‘세 살’이 ‘어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숫자 3의 상징 의미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속담이라 할 수 있다.

‘열’, ‘십’은 앞서 교재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다’, ‘오랫동안’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많다’는 의미로 ‘십’, ‘백’, ‘천’, ‘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백’이 ‘많다’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는 ‘백성(百姓), 백화점, 백과사전’ 등을 들 수 있다. ‘천’은 ‘천추(千秋), 천재일우(千載一遇)’ 등의 표현에 사용되고, ‘만’은 ‘만능(萬能), 만물(萬物)’ 등의 어휘에 사용되는데 주로 한자어 표현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수는 ‘천’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천 냥’, ‘천 리’, ‘천 길’, ‘천리마’

35)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가장 작은 수인 숫자 ‘一’을 ‘크다(巨, 大, 多, 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특징적인 숫자 관념으로 흠어져 살기보다는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 했던 생활 속에서 나온 의식이라 하였다(최은경, 1985:84~85).

36)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 상징사전』(2)에서도 ‘동네 혼사 3대 적선해야 성사된다’, ‘3년 구병에 불효 난다’, ‘서당개 3년에 풍월 읊는다’, ‘사흘 굶어 도둑 안 되는 이 없다’, ‘3년 가뭄에 하루 쓸 날 없다’ 등의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셋은 ‘긴 세월’을 뜻한다는 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등의 표현은 속담 및 관용표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만’은 그 빈도가 ‘천’에 비해 매우 적다.³⁷⁾

숫자가 포함된 관용표현은 외국어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는 “이제 열세시다.”라는 말은 “그만해라”, “너는 못 참겠다.”, “이젠 끝장이다.” 등을 뜻한다(전대호 옮김, 2013:44~45)고 한다.³⁸⁾ 영어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³⁹⁾ 이러한 표현을 숫자 상징과 연관 지어 제시한다면 언어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언어 표현에 사용된 숫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학습자 문화와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IV. 숫자 상징 활용 방안

-
- 3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천(千)’으로 시작되는 속담은 32개를 찾아볼 수 있으나, ‘만(萬)’으로 시작되는 속담은 ‘만경창파(萬頃蒼波)에 배 밀 뚫기, 만냥의 돈인들 무슨 소용이나, 만 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만승천자(萬乘天子)도 먹어야 산다,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의 5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표현들이다.
- 38) 이 외에도 오토 베츠(2004)에서는 “두 개로 갈라진 혀를 가진 사람”(표리부동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양어깨에 짐을 올려놓은 사람”(번덕이 죽 끓듯 하여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예를 들어 2가 단일한 형태가 깨어지고 통일적인 모습이 둘로 갈라진 분열이나 분과, 나아가 내적 분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오토 베츠 지음, 배진아 옮김, 2004:26~28).
- 39) 제이미 버컨 지음, 제효영 옮김(201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three sheets to the wind: 곤드레만드레 취하다, the third degree: 꼬치꼬치 캐묻다, the fourth estate: 제4계급(언론계, 기자들), fourth wall: 제4의 벽(연극 무대와 관객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 five by five: 완전히 알아듣다, fifth columnist: 배반자, take the fifth: 목비권을 행사하다, deep six: 처분하다(무언가를 은밀한 방법으로 제거하다), at six and sevens: 혼란스러운, seventh heaven: 더없는 행복, one over the eight: 잔뜩 취하다, cloud nine: 날아갈 것 같은 기분, the whole nine yard: 모조리 또는 전부, dressed to the nines: 멋지게 차려 입다, nineteen to the dozen: 설 새 없이 지껄이다, 23, skidoo!: 어서 꺼져버려!, forty-niners: 새로 발견된 광산에 몰려드는 사람들.

숫자 상징을 한국 문화 교육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교육은 교사의 설명에 의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재에 관련 소재나 주제가 제시되었을 때 교사가 해당 상징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상징 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숫자 상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읽기 자료 제공, 말하기 활동 자료 제공, 체험을 통한 문화 교육’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읽기 자료 제공

숫자 상징과 관련된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넓히는 데에 필수적이다. 또한 읽기 자료는 한국 문화와 학습자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자료의 예로 서울시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하철 사랑의 편지’ 중 ‘4의 찬미’라는 칼럼을 활용하고자 한다.⁴⁰⁾ 실제 자료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읽기 전 활동과 읽기 후 활동을 추가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40) 지하철역 내에 게시된 글의 작품성 및 언어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문학 수업이 아닌 문화 수업에서의 상징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하철은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역내에 게시되거나 부착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은 문화 교육의 자료가 된다.

4의 함미

미신 중에 우리 생활에 깊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숫자 '4'에 대한 미신입니다. 숫자 '4'는 죽을 사(死)를 의미한다며 꺼리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4층이 생뚱맞게 F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4'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죽을 사(死)자와 발음만 같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수배자와 이름이 같다고 체포하려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숫자 '4'의 미신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만 제한적으로 통하는 미신입니다. 알고 보면 숫자 '4'는 예부터 땅의 완전수로 통했습니다. 동서남북의 네 방향, 춘하추동의 사계절을 가리키는 길수(吉數)로 여겨졌습니다.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는 4번 타자이며,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도 잎이 네 개여야만 합니다. 선비 사(士)나 사랑의 사와 연관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 요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축복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9회말 투아웃에도 역전만루홈런을 기대합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공평한 사실이지요. 잘못된 믿음으로 사고의 폭을 줄이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도전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것 보다 지나간 시간에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의 칼럼은 칼럼니스트 한메산이 쓴 글로 숫자 4의 상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는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숫자 '4'에 대한 미신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며 '죽음'이 아닌 다른 상징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몇 어휘를 제외한다면 고급 수준 학습자들에게는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칼럼을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구성할 때, 읽기 전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1. 여러분은 좋아하는 숫자나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싫어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3. 한국에서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위와 같은 질문은 읽기 자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숫자와 관련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문화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국의 숫자 상징에도 관심을 가지고 숫자의 사용에 어떠한 문화가 반영된 것인지 자료를 조사해 보고, 한국 문화와 어떤 점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보는 읽기 후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국에서 의미 있는 숫자 찾아보기, 그 숫자에 담긴 의미 생각해보기,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숫자와 비교해 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자국에서 다른 숫자 또는 같은 숫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갖는지 이야기해 봄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한 자료 외에도 각각의 숫자 상징이 신화와 전설, 동화⁴¹⁾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숫자 상징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어떠한 금기가 있는지, 언어 표현에 사용된 숫자에는 어떠한 상징 의미가 있는지 등을 읽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2. 말하기 활동 자료 제공

학습자들의 말하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말하기 주제와 소재,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예(2016:136)에 제시된 ‘문화 간 의사소통 활동 모형’을 숫자 상징에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동화에서는 특히 3이 많이 등장한다. 삼형제나 세자매가 등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셋째에게 화자의 사랑과 동정심이 집중된다. 셋째는 바보, 몽상가, 게으름뱅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인정이 많고 착한 셋째가 결국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왕이 되거나 공주 또는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동화 속의 영웅은 자신의 실력을 세 번에 걸쳐 증명하게 된다. 또한 주인공이 세 가지 임무를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마법의 도구(예: 투명인간이 되는 모자, 한 걸음에 7마일을 가는 장화, 하늘을 나는 양탄자 등)가 등장한다(오토 베츠 지음, 배진아 옮김, 2004:49~52).

수업 절차	학습자 활동	교사 준비 사항
사전 과제	자국의 숫자 상징 사용 사례 자료 조사	한국과 학습자 국가의 숫자 사용 사례 자료 조사
말하기 활동	한국과 자국의 숫자 사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한국과 학습자 국가의 숫자 사용의 공통점 및 차이점 정리 자료
토론	원인 파악하기	토론 상황 점검, 토론 내용의 객관성 확인
마무리	소감 발표하기	발표 내용 정리

위와 같은 말하기 활동은 문화 간 의사소통 활동의 하나로 한국어 수업 내에서 학습자 문화와 한국 문화에서 숫자 상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떤 점에서는 공통적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 보고, 그 원인에 대해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해 보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토론한 결과를 발표해 보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해 본 것에 대해 소감을 이야기하는 말하기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다른 학습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3. 체험을 통한 문화 교육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문화 학습 방법 중 하나인 체험 학습에도 숫자 상징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 학습의 예로 ‘숫자 찾아보기’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활동은 ‘병원에 없는 4(엘리베이터, 병실, 침상 번호 등) 찾아보기, 상점 전화 번호 찾아보기, 상품명에 사용된 번호 찾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전화번호 찾아보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들이 자국에서 인기 있는 전화번호를 조사해 보도록 한다. 이때 이러한 체험 학습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 전, 후에 상징 의미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학습자 국가에서 사용되는 의미 있는 숫자에 대해 교사에게 숫자 상징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는 ‘8888’ 같은 번호가 인기가 있어서 실제로 상해의 전화국에서 이 번호를 경매한 결과 인민폐 몇 십 만 원의 고가에 팔린 일이 있다. ‘1688’도 그 발음이 ‘一路發(앞

으로 계속 돈을 벌다)’와 같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전화번호회에서 해음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점에서는 ‘4741’(‘상품이 좋다; shinayoyi’)와 비슷한 발음을 선호하고, 우동집에서는 ‘8814’(‘곧 나옵니다; hayaiyo’)와 비슷한 발음), 세탁소에서는 ‘4697’(‘희게 함; shirokuna’)와 유사)을 선호한다(이재승, 2003:196~197)고 한다. 다른 문화에서도 이러한 번호를 찾아보는 것은 학습자들의 문화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에는 왜 그 숫자를 사용하는지 그 의미를 추측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숫자의 사용에도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실제 번호를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국어 교사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의 예는 가 교재 초급 2권에 제시되어 있는 ‘재미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초급Ⅱ 4과 ‘결면 좋은 일만 생기는 무료 전화 080-0404

<음식류> 중화요리 8585(바로바로) 피자 전문점 1414(피자피자) 치킨 9292(구이구이) 쌀집 4848(쌀판쌀판) 한식·분식 6262(요리요리) 김밥 전문점 2262(둘둘요리) 제과점 8145(빵하나사오) 도시락 전문점 8787(반찬반찬) 다방 7235(차드세요)

<운송/자동차> 이삿짐 센터 2424(이사이사) 자동차 매매 7894(차팔구사) 택시 2288(뛰뛰빵빵) 렌터카 7070(차오차오)

<의료서비스> 병원 8275(빨리치료) 한의원 1075(한방치료) 치과 2875(이빨치료)

<생활서비스> 꽃 배달 3535(사모사모) 결혼식장 4040(사랑사랑) 사진관 4747(사진사진) 안경점 7524(잘보이네) 석유 배달 5151(오일오일) 정육점 1515(한우한우) 웨딩드레스 5228(옷이이빠) 세탁소 3782(세탁빨리) 기차역 7788(칙칙폭폭)

위와 같은 전화번호는 중국어의 ‘해음’과 유사하게 한국의 문화 요소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문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위에 제시된 전화번호 외에 ‘1004’와 ‘4989’, ‘7942’, ‘7142’, ‘8282’도 선호한다. ‘1004’

는 ‘친사’와 발음이 같고, ‘4989’는 ‘사고팔고’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7942’는 ‘친구 사이’, ‘7179’는 ‘친한 친구’로 청소년 관련 단체 전화번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8282’는 ‘빨리빨리’로 사용된다. 학습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자국의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한국의 전화번호와 비교해봄으로써 숫자 상징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는 체험 학습 외에 의성어, 의태어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음 외에 학습자들이 체험 학습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숫자를 찾아보는 활동도 할 수 있다. 탑의 층 수, 건물 계단의 수, 각종 조형물, 도자기나 민화에 사용된 동식물의 수를 세어 보고 그 수에 담긴 의미를 추측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숫자 상징에 대해 교사가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V. 결론

숫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 신화, 전설, 민담, 동화 등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오토 베츠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관계들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숫자의 구조 속에 인간들의 인생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숫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숫자라는 작은 단위를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토 베츠, 2004: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의 체계 중 숫자 상징을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 숫자 상징의 범주를 ‘신화, 민속, 금기, 한국어 표현’으로 재정리하여 한국 문화 이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숫자 상징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숫자 상징을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읽기 자료 제공, 말하기 활동 자료 제공, 체험을 통한 문화 교육’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방안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한국의 숫자 상징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문화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호 문화 이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사는 추상적인 상징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숫자 상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언어 교육과 통합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한국 문화를 전달할 수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숫자의 상징 의미를 통해 한국과 자국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 및 다른 학습자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문화 교육에서 숫자 상징을 활용하는 것은 상징의 차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생기는 문화의 근원적인 차이를 발견, 이해하게 함으로써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의 문화 요소를 찾아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숫자 상징 교육의 효용성을 직접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신화나 민담, 성어 등에서 사용되는 숫자 상징, 하나의 언어에 나타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검토하여 상징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숫자 상징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민진, 『중국 숫자의 문화적 함의』,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권수전, 「『四字成語』 속에 나타난 중국문화 연구 : 숫자와 색채어를 포함한 성어를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제49집, 2011.
- 김남예,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색채상징 활용 방안 연구: 『세종한국어』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0집 1호, 다문화평화연구소, 2016.
- 김남예, 「상징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 문화 상징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2권 2호.
- 김열규, 『기호로 읽는 한국 문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제27호,

2005.

-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 훈민, 2006.
- 명현숙, 『민족문화상징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영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국 문화』, 현암사, 2008.
- 박완호, 『문화로 이해하는 중국』, 한국학술정보, 2009.
- 박종한, 「숫자에 담긴 중국문화와 그 활용」, 『중국문화연구』 제2집, 2003.
- 박한나,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2009.
- 배현숙,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제21호, 2002.
- 서간려, 이윤선, 고정, 「중국의 짝수와 홀수 신앙습속 비교 및 문화 함의」, 『비교민속학』 제44집, 2011.
- 손노선, 「단군신화속의 3*7일과 100일의 의미」, 『한국민속학』 54, 2011.
- 이상연, 「한국인의 수 개념 연구 1 : 숫자 3에 대하여」, 『韓國民俗學報』 제5호, 1995.
- 이재승, 「중, 외 비교를 통해 본 숫자의 문화적 함의」, 『인문논총』 제17집, 2003.
- 이재승, 「중국어의 숫자에 나타난 문화적 함의」, 『인문논총』 제15집, 2002.
- 이충수, 「영어 고전동화와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숫자 3의 의미」, 『현대영어영문학』 제52권 4호, 2008.
- 임광욱, 「중한 숫자 활용 대조연구」, 『인문학연구』 제26호, 2014.
- 임동권, 「단군신화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 장범성, 「중국인의 숫자관념과 민속」, 『중국학연구』 제18집, 2000.
- 장범성, 『중국인의 금기』, 살림출판사, 2009.
- 장장식, 「『몽골비사』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성 : 3과 9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4집, 2011.
- 정민·박수밀·박동욱·강민경,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2권, 휴머니스트, 2004.
- 정혁진, 『중국 숫자 연구: 숫자 성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정환석,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문화 더하기 콘텐츠』 제6호, 2015.
- 조승아, 『중국 숫자의 함의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9.
- 조현용,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22호, 2003.
-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 채보라, 『한자 숫자성어 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은경, 「韓國民譚에 나타난 숫자개념 : '三'을 中心으로」, 『韓國語文學研究』 16, 1985.
- 한용수, 「중국 금기어 소고」, 『비교문화연구』 34집, 2014.

한용수·강영규, 「숫자가 쓰인 중국 성어(成語)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13호, 2012.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지음, 『기호와 상징』, 주민아 옮김, 21세기북스,
2010.

오토 베크 지음, 『숫자의 비밀』, 배진아·김혜진 옮김, 도서출판 다시, 2004.

제이미 버컨 지음, 『파이만큼 맛있는 숫자 이야기』, 제효영 옮김, 시그마북스, 2010.

진 쿠퍼 지음,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글방, 1994.

카를 G. 응 외 지음, 『인간과 상징』,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12.

토니 알란 지음, 『상징을 찾아서』, 김남예·조현용·한정연 역, 도서출판 하우, 2015.

하랄트 하르만 지음, 『숫자의 문화사』, 전대호 옮김, (주)알마, 2013.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1), 동아두산출판사,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2), 동아두산출판사, 1996.

Hyun-tahk Chay, 「Analyzing East Asian and European culture in terms of numeral superstitions」, 『國際言語文學』 Vol.11, 2005.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중급 I~고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3.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 5~8, 도서출판 하우, 2013.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3A~5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00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3-1~6-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ABSTRACT

A Study on Korean Culture Education by Applying Numerical Symbols

Kim, Nang-Ye

Through the proces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specific numerical symbols that are present in our daily lives, rather than regarding them as abstract symbols. The symbols can be efficiently utilized for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teachers and foreign learners, and between learner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 symbol that intensively shows Korean culture can be applied efficiently to cultural education. This is because Korean identity can be understood by means of symbols that represent Korean thoughts and emotion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ontents of symbol education applicable to Korean culture education, centering on numerical symbols amid far-reaching symbol syst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application of numerical symbols is presented in Korean textbooks, with the intent to organize the symbols into 4 categories of myth, folklore, taboo, and idiomatic expressions, which might be actually helpful for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Key Words

numerical symbols, Korean culture, 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